

## 우수한 품질의 돼지를 생산하는 청주·청원지부

- 취재 : 조진현 -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괄하는 청주·청원지부는 80년 6월 19일에 설립되어 현재 제 12대 이기만 지부장까지 이어오고 있는 전통있는 지부이다.

현재 50여명의 지부회원을 두고 있으며, 근래에 들어 도시화에 따라 호수는 줄어들고 두수는 늘어나는 현상이 현저한 곳 중 한 곳이 청주·청원이다.

이 지역은 대청댐의 수원관리로 인한 분뇨처리의 어려움이 있는 곳이기도 하나, 수준높은 양돈으로 우수한 수출 규격돈을 생산하고 있어 양돈인들의 위상이 한층 더 높은 곳이다.

지부 회원들의 평균 사육두수는 모돈 70여두 정도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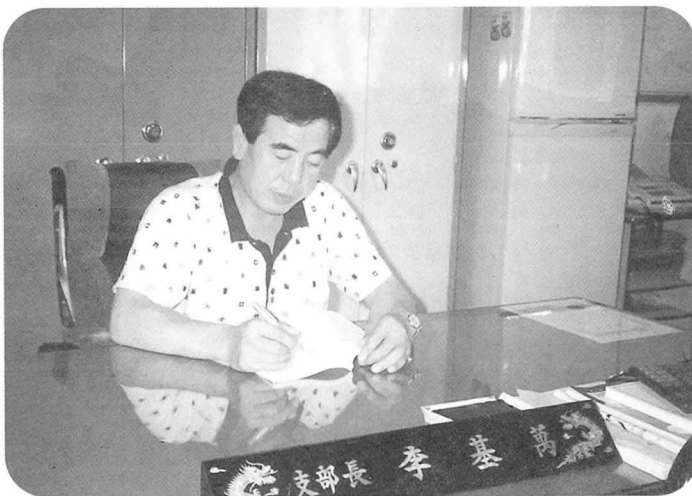
### 우수한 품질의 수출돈 100% 생산

지부는 지역내 한냉 육가공공장에 전 두수의 80%정도를 공동출하하고 있으며, 도드람이나 축협에 나머지를 출하해 100% 규격돈을 생산하고 있다.

'96년에 설립된 한냉 중부 육가공공장은 이전부터 지역의 돼지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돼지 구입시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으며, 출하된 돼지의 품질내역을 농가에 상세하게 알려주는 등 우수한 품질의 돼지를 공급받기 위해 여러모로 신경을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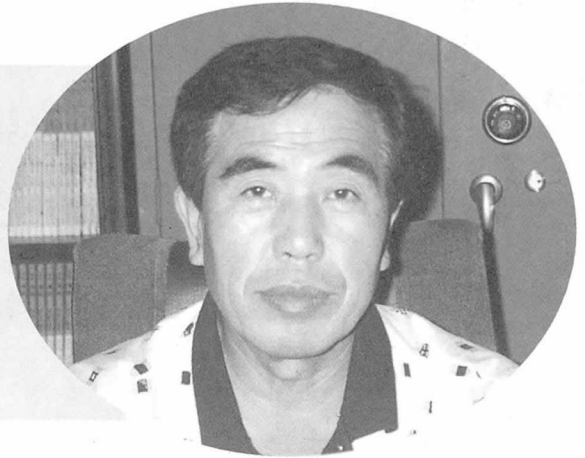
또한, 한냉은 규격 합격률이 80% 이상일 경우 두당 8,000원, 80~84%일 경우 두당 6,000원, 70~79%일 경우 두당 4,000원, 60~69%일 경우 두당 2,5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한냉의 유도와 양돈농가의 자연스런 대처로 청주·청원지역의 돼지 품질은 상당히 우수한 편으로 수출돈으로써의 가치가 높다고 한다.

지부는 지부의 운영을 위해 공동출하시 돼지출하자조금으로 마리당 1,000원씩을 모으고 있으며, 소비의 촉진과 생산자 단체인 양돈협회가 소비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서 시내에 직판장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 직판장은 회원 개개인이 50~300만원까지 출자하고, 정부융자와 도의 지원으로 지난 '92년부터 운



▲이기만 지부장이 지부사무실에서 업무에 열중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대폭적인 사료값 인하가 있어야 합니다. 오른 만큼 내려야지요. 농민을 위한다는 축협에서부터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되어야 업체들이 따른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돈가의 95%가 사료비로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제 인건비는 커녕 약품값도 맞추기 힘듭니다.”



▲이기만 청주·청원 지부장

영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 무엇보다도 사료값 인하가 먼저

지부는 농협조합장을 3선까지 역임한 바 있는 현 이기만 지부장을 비롯, 지역에서 영향력이 높은 인사들이 계속해서 지부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매월 빠지지 않는 월례회(세미나 포함)와 매년 선진지 견학과 야유회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 이기만 지부장은 회원들이 협회 회원으로 있으면서도 한 배를 탄 한 가족이라는 인

식이 부족해 뚝뚝 뭉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임기기간동안 최대의 목표가 친목도모를 통해 회원들이 모두 한 몸이 되는 것이라 이야기 했다.

또한, 현재 양돈산업의 피해가 극심하며, 여러 농가가 양돈을 그만둘 처지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하고, 현재의 어려운 여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불황이 한시라도 빨리 끝나서 소비가 늘어야 할 것이라며 근심에 찬 모습을 보였다.

이기만 지부장은 “양축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대폭적인 사료값 인하가 있어야 합니다. 오른 만큼 내려야지요. 농민을 위한다는 축협에서부터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되어야 업체들이 따른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돈가의 95%가 사료비로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제 인건비는 커녕 약품값도 맞추기 힘듭니다.” 라고 말하고 빠른시일내에 축협을 위시한 사료업계의 사료값 대폭 인하와 상환자금 연장이 있어야 하며, 수출의 확대가 뒤따라야 될 것이라 덧붙였다. **養豚**



▲사무실 안 살림을 맡아하는 베테랑 박미옥씨(왼쪽)와 이기만 지부장(오른쪽)